

주일예배

오전 (1부) 8시 30분
오전 (2부) 7시 30분
오전 (3부) 10시
오전 (4부) 2시
주요일회 (월) 18시 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주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예수중심교회

2013년 5월 12일 (제689호)

주일예배

오전 (1부) 7시 30분
오전 (2부) 10시
오전 (3부) 2시
저녁예배 7시 30분
수요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1 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월·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지금 자네 생각을 어떻게!

먹구름 싫어하고 어찌 단비를 바라며
비바람 싫어하고 어찌 뽕리를 내려라.
따가운 햇살을 단 열매 만개거지.
아~ 그리운 지난 세월
추억이 날 웃음 짓게 하누네!
먹구름 비바람 따도를 두려워하며 떨던 내가
세상사 깨닫고 노래방 육대국
미친 듯 뛰고 달리고 행해하며 비행하니
유능한 선장 밑줄에 신비로움 만끽하며 소리 지름 알았지.
아~

나의 사랑의 소발 선원들과 함께
낙조 매력에 취한 생선회 감칠맛 알았네.
힘박과 수조의 핏방울 등 매고 어력에 노르니
영롱한 눈망을 천사 무지개 꽃 만기며
사랑의 멜로디로 반기누네!
아~ 그리운 찬란히 빛나는 예수 영광의 면류관
이 밤도 그려보누나.

메보게!
세상사 목적 없는 흐른 없다네.
감사의 깨달음 알며는 행복의 찬미 네 주위에 맴돌며
천사와 함께 춤추는 지상낙원 네 맘에 있음을 알려라

5월에... 朋友 미호식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

봉우칼럼

효(孝)

나에게 제일 가슴 아픈 일은 내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나는 가끔 내 아버지의 떠도는 영혼을 본다. 눈물을 흘리며 갈 곳이 없다고 우는 내 아버지 영혼을 보면서 신앙에는 인정도 눈물도, 혈연도 없기에 할 수 없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가라'며 명령할 때면 정말이지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

이 강을 이룬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법 없이도 사시던 호인이셨다. 없이 사는 이웃을 조용히 챙기셨고, 정말 겸소하고 부지런히 사셨던 분이다. 특히 장남이었던 나에게는 아낌없이 다 주신 분이다. 당신은 허름한 자전거를 끌고 다닐 때, 나는 아버지의 재산으로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자체 생산한 포니를 타고 다녔었다. 그런 분이 지금 음부를 떠돌고 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예수를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항상 남는다.

그래서 나는 내 사랑하는 어머니와 동생

들을 위해 정말 눈물로 기도했다. 우리 아버지는 이제 어쩔 수 없지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절대 음부를 떠도는 귀신이 되지 않게 하려고, 지옥에 보내지 않으려고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예수 안 믿으면 귀신이 되고 지옥에 간다고 하면, "그럼 너 아버지가 귀신이나?"며 어머니는 내 먹살을 쥐고 소리를 질렀다. 사랑하던 남편이 귀신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리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정해놓은 이치이니 내가 어찌랴.

내 기도와 눈물은 헛되지 않았다. 이제

내 어머니가 명예권사 직분까지 받았을 뿐 아니라 내 형제들 중 두 명이 목사가 되고, 내 아들과 조카도 전도사가 되었으며, 여동생은 신학을 마쳤다. 비록 어머니의 속을 많이 썩여드렸지만, 그래도 나는 내 할 도리를 다했다고 자부한다. 영혼을 구원했기 때문이다. 이보다 큰 효도는 없다. 형제우애나 사랑도 물론이다.

아버이 날, 선물도 좋고 외식도 좋다. 그러나 부모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제일 큰 효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시128:1~6)



가정은 나무의 뿌리와 같다

책은 강물을 살리려면 먼저 냇강을 살려야 하듯, 책은 사회를 살리려면 먼저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 사회가 병들고 책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가정이 병들고 책였기 때문입니다. 냇강이 책으니 강물이 오염된 것처럼, 가정이 병드니 사회가 병든 것입니다.

늘 말씀 드리지만 집(house)은 돈으로 지을 수 있지만, 가정(home)은 돈으로 살 수도,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정도 일반 사회나 똑같이 돈, 돈, 돈, 1등, 일류대학, 출세만을 지향하고 있어 가정이 더는 안식처가 아닙니다. 겉으로야 번지르르하지요. 좋고 너른 아파트, 최신식 전자제품들, 완벽한 인테리어, 비싼 차..., 그러나 그 안에 정작 행복이 없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가 거목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뿌리입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나무가 건강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뿌리가 바로 엄마요, 아내입니다. 가정에서는 누구보다 아내요, 엄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현모양처(賢母良妻) 되겠다는 여자가 없습니다. 그런 여자는 무슨 구닥다리 여자 취급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여자는 현모양처가 되어야 합니다. 내내는 '안의 해'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집 안의 해라는 말입니다. 집 안을 어둡게 하느냐, 밝게 하느냐, 집안 농사가 잘 되느냐, 못되느냐는 온전히 집안

식, 부모, 부귀영화, 행복이 모든 것들이 작대기가 빠져나가버리면 다 깨집니다.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훌륭한 남자 뒤엔 반드시 어진 여인이 있었고, 훌륭한 자녀 뒤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의 눈물이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현숙한 아내가 진주보다 그 값이 더하다고(잠31:10). 뿌리 없는 나무가 있을 수 없으니까요. 뿌리가 튼튼하면 나무는 쏙쏙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잘 된다는 거지요. 잠언 31장에 보면 어진 아내를 만나면 남편의 산업이 꺾이지 않고(잠31:11), 악을 행하지 않으며(잠31:12), 명성이 높아지고(잠31:23), 존귀한 자가 된다(잠31:23), 존귀한 자가 된다(잠31:23), 존귀한 자가 된다(잠31:23).



31:25).

여러분, 행복이란 많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가 중요합니다. 그 관계를 성경은 이렇게 정립시켜놨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엡5:25),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엡5:22), “자녀들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엡6:1), “아비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엡6:4). 이 관계가 잘 정립되면 가정은 바로 섭니다. 가정이 바로 서면 사회 또한 깨끗하게 바로 섭니다.

앞에서 아내들 이야기만 했다고 남편들이여, 아내 쿡쿡 찌르며 “잘해” 그럴 건 없습니다. 남편, 아빠들의 책임 또한 이에 못지않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적은 수임으로 열매를 맺을 사는 아내, 애들 건사하느라 자신은 없는 아내, 부모 섬기느라 쉴 틈 없는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줘야 합니다. 남편들! 밖에서 인기 얻으려고 하지 말고, 아내에게 인기 있는 남편이 되어야지요. 밖에서는 큰소리 한 번 치지도 못하다가 집에 와서 마누라 잡는 남자는 남자도 아닙니다. 마치 집에서 왕이나 된 듯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내에게 시키는 남자, 결핍하면 아내에게 손 올라가는 남자, 있는 욕 없는 욕 해대는 남자, 이거 다 못나서 그런 겁니다. 북어와 마누라는 사흘에 한 번씩 패야 한다고요? 이는 천하에 못난 놈들입니다. 내내는 ‘더 연약한 그릇’(벧전3:7)입니다. 험둔 일,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함께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작대기는 힘들어도 절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다 음은

자녀의 관해서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는 체벌을 해야 합니다. 채찍이 천대(千代)를 기르는 법이거든요. ‘초당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잠언 1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심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 아이가 학교 갔다 들어와서는 돈을 달라고 보냈습니다. 엄마가 ‘에베드르니가 조금 있다고 준다’고 하자 갑자기 아이가 엄마 뺨을 때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그래도 재가 학교에서 1등해요.”라고 했대요. 목사님은 예배를 중지하고 ‘아이를 때려서라도 제대로 가르치라’며 그 집을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초당을 아끼면 어미를 욕되게 합니다(잠29:15). 신명기 6장의 말씀(신6:10~11)대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십시오. 그러면 잘 되지 말라고 해도 잘 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저는 효자의 유례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동네 어느 집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어린 손자를 베고 자다가 그만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자기가 손자를 죽였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엄마인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자책하며 얼마나 괴로워할까 생각하여 물

**여인의 젖가슴은 아기의 안식처요
여인의 마음은 남편의 안식처다**

래 죽은 아이를 안고 나와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 죽은 아들의 뺨을 호되게 때리며 “이 자식아, 너는 왜 죽어서 할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너 때문에 이 아비가 네 할아버지께 씻을 수 없는 불효를 저질렀으니 이를 어떡하면 좋으냐?”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살아났답니다. 이 일이 동네에 퍼지고 입금님 귀에까지 들어가 그 동네 이름이 ‘효자동(孝子洞)’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가만있으려고 하나 바람이 가만 놔두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나 세월이 부모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부모 계시는 때 효도하세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순종하세요. 여러분도 늙습니다. 효도 받으려면 효도하세요. 자주 찾아뵙고 말 상대도 해드리세요. 가르치려 들지 말고, 집 보는 게 취급하지 말고 잘 살피드리세요. 당신은 시장 옷 사서 입고, 부모님은 백화점 옷 사드리세요. 효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부귀와 장수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성공 없이는 진정한 성공을 논할 수 없습니다. 야구에서 아무리 잘 때리고, 아무리 잘 달리고, 만루가 되었다고 해도 홈에 들어오지 않으면 승리와 무관하듯,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출세와 명성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홈(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면, 들어갈 가정이 없다면, 진정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십시오. 할렐루야!

**달팽이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다
동기숙사(東家宿西家食)하지 마라**

의 해인 아내, 엄마의 몫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 어리석은 엄마들이 많습니다. 음식은 인스턴트로 먹고, 옷은 명품으로 입혀야 되는 줄 알고, 애들은 대어섯 군데 학원으로 돌리고... 뿌리가 책은 거지요. 그러나 나무가 마르고 썩는 겁니다. 그런 나무에서 무슨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와가 현숙한 아내였더라면 남편도 바로 세웠을 거고, 자식도 그렇게 개차반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형제를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 말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를 봅시다. 뱀속에서부터 싸우던 두 형제였지만, 그녀의 지혜로 싸움을 막았고, 결국 둘 다 대성시켰습니다.

주례를 설 때면 저는 지계와 작대기 이야기를 꼭 하는데, 아내를 작대기에 비유합니다. 바소쿠리에 아무리 많은 것을 담았더라도, 작대기가 빠져나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쏟아져버립니다. 남편, 자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060)700-0633

(060)700-02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역사는 곧 미래다

국보 1호 숭례문(남대문)이 어처구니없는 화재로 소실된 지 5년 3개월 만에 복원되어 일반에 공개되었다. 지난 2008년 2월 10일 밤, 한 노숙자의 한풀이식 방화로 우리의 국보 1호는 허망하게 불타고 말았다. 그것도 지상과 TV의 생중계 속에,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말이다. 그것은 역사 보존에 대한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 한민족의 역사적 자존감이 처참하게 붕괴하는 모습이었다. 우리의 반만년 역사에 수많은 이민족의 외침과 전란(戰亂)이 있어왔고, 그 속에서 우리의 역사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은 매우 지난한 일이었다. 그것은 사실 불가항력적인 일들이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일어난 문화재 유실 사건들은 대부분 인재에 의한 소실이었기에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을 만큼 낱부끄러운 일이다. 가끔씩 뉴스를 타고 흘러나오는 문화재 관련 소식들은 관광객들의 무차별한 낙서로 훼손되는 문화재들, 그리고 방화에서 시작된 산불로 타버린 문화재들에 대한 안타까운 고발들이어서 스스로 문화민족임에 하는 자부심이 참으로 공염불에 지나지 않음을 느낀다.

이번 숭례문 복원을 총지휘한 신응수 대목장은 복원공사를 마치며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숭례문을 복원해냈다는 기쁨보다는 조상에 대한 죄를 조금이나마 씻은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러나 역사의 보존은 단지 조상에 대한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이는 우리 후손들

에게 더욱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이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런던의 대영박물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박물관, 워싱턴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등 세계적인 역사유물의 전시관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자국민들의 문화적 자존감을 대변하고 상징한다. 유럽의 박물관을 보고 문화재 약탈의 도둑창고라고 폄하하거나 미국 박물관에 대해 200년이라는 일천(日淺)한 역사를 억지로 포장하고 있다며 조롱하는 소리도 있지만, 이는 그러나 있는 문화재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민족이 할 말은 결코 아니다.

더더구나 근심이 아닐 수 없는 현실은 국사교육의 부재다. 대학입시에서 선택 과목으로 전락한 이후, 우리의 역사 교육은 전무한 상태라고 봐도 좋다. 며칠 전 뉴스에서 기자가 거리에서 만난 청소년들에게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질문했더니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답변이 나왔다. 2차 대전 일본 전범들이 합사된 묘지로 동아시아 역사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이곳을 우리 젊은이들은 ‘무슨 신사(紳士), 즉 젠틀맨(Gentleman)을 가리키는 말 아니냐’고 하니 이는 실망을 넘어 절망이다. 역사를 배우고 보존하는 일은 결국 나를 발견하고 지키는 일이다. 어느 민족이나 개인이나 과거가 없는 오늘이 있을 수 없고, 더더구나 미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나와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기억하라’고 피를 토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 극명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처참한 역사에서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기억해서 지은 그들이 어떤 비극을 맞이했는지 말이다.

역사를 잊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역사를 왜곡하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은 악행이다. 일본의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역사왜곡은 세대가 흐를수록 한일 간 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역사교육이 2세 교육의 중심에 서야 한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은 비극이다. 하나님을 몰라 인생의 방향타를 잃고 멸망해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비극을 알지 않는가? 역사는 단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개인의 정체성을 결정짓고, 그로부터 미래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에너지가 된다.

국보 1호 숭례문의 복원은 단지 일개 소실된 문화재의 복원 차원을 넘어 우리 역사교육이 제자리를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역사를 보존하고 발전시키지 못하는 민족은 역사에서 사라질 수밖에 나라들과 동일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고구려의 역사마저 그들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과격치한 역사왜곡이 엄연한 현실인데, 역사교육을 등한시하고야 어찌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겠는가? 우리 미래에 대한 불투명하고 비관적인 전망들이 엮여있고 있는 오늘, 올바른 역사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확실한 토대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16)



::성경에세이::



귀를 기울이세요

“아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못혀 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각자의 자리에 출려서 일하던 은 식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며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을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이 땅의 천국 생활이 아닐까요?

그러나 천국 생활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부터 관심과 배려로 가족구성원 서로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결코 거창하고 큰 일이 아닙니다. 당장 지금부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하는 것이 곧 효도입니다. 차고 일어난 잠자리나 자기가 입는 옷을 스스로 정리하고, 부모님이 나를 부르실 때 지체하지 않고 나오는 것 같이 작고 사소한 일부터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매달려서 말고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도록 노력하십시오. 가족간의 대화는 친밀감과 두터운 신뢰를 형성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로부터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처럼, 부모님들도 자기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지난 4월 서울교회 대학부 아버지 초청예배를 주최한 이유입니다.

신재성 전도사

blessedmb@naver.com

잘 되는 게 복수하는 거야!

아들아!
아비가 어릴 때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들어보겠니?
당시 동네에 좀 산다는 집이 있었단다. 어느 날 우리가 타작을 하기위해 마당을 쓸고 닦아놓았는데, 글썽 그 집 아들 녀석이 삼륜차를 타고 우리 논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것 아니겠니? 그래서 마당에 차 자국이 생겼단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막 짖아가며, “이 죽임 놈, 내가 가만 놔두나 봐라.” 했더니 네 할아버지가 아비에게 이렇게 말씀 하셨단다. “그렇게 화낼 것 없다. 원수 갚고 싶으면 저 놈보다 잘 되면 된다. 저 놈보다 잘 되는 게 최고의 복수야.” 그러셨단다.

와신상담(臥薪嘗膽)이란 말이 있지?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참고고움을 참고 견디는 말이지. 그러나 아비는 이렇게 생각한단다. 원수를 갚기 위해 불편한 삶에 몸을 누이고 쓸개를 먹는 일을 할 시간에 노력하는 게 낫다고. 그래서 원수보다 잘 되어 내 안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게 낫다고. 네 할아버지가 아비에게 말씀하신 것이 백 번 옳거든.

아비도 교단에서 제명을 당하고 가슴이

많이 아팠단다. 매스컴도, 책도 나를 이상한 쪽으로 매도하고 곤경에 빠뜨렸지. 처음에는 그 분노를 삭일 수 없어 뜯는으로 밤을 지새웠단다. 그러다 생각했지. 내가 잘 되면 된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된다고. 그래서 ‘두고 보자’ 하며 남들이 잘 때 공부하고, 남들이 쉰 때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지식을 쌓고 능력을 쌓았지. 그 결과 지금은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로 우뚝 섰다. 이제 누구도 아비를 두고 말가왕부할 수 없게 되었단다. 외국에서건, 국내에서건 물레 아비를 찾아와 어떻게 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 건지 묻는 주의 종들이 많고, 설교 DVD를 받아보는 주의 종들도 수천에 이른다.

아들아!

한나와 브ನ್ನ나의 경우도 그렇단다. 너도 알다시피 한나와 브ನ್ನ나는 열가나라는 한 남편을 둔 아내들이다. 그런데 브न्न나는 애를 잘도 낳는데, 한나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지. 얼마나 속이 탔겠니? 그런데 가만 놔둬도 마음이 아픈 한나를 브न्न나가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지. 자식 있는

유세를 한 게지.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여자냐?’ 뭐 이런 식이었을 거다. 그러니 한나는 분하고 원통하고 살맛조차 없었지. 그래서 결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단다. 눈물 콧물 흘려가며 울며 통해서 “나도 아이 하나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한나의 눈물의 기도에도 드디어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셨단다. 브न्न나의 아들들보다 몇 배 백 훌륭한 아들을 주신 거지. 그걸로 한나는 브न्न나에게 완전한 복수를 한 거란다.

우리 교회 어느 청년의 이야기도 좀 할까? 그의 아버지가 그가 어릴 적에 가정을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로 가버렸지. 그 아이는 그런 아버지가 미웠단다. 그 때 아비에게 상담을 왔는데, 내가 그 때 이렇게 말했었다. “원수 갚고 싶으면 성공해라. 네 아버지가 너를 버린 걸 후회하게 만들려라.” 그랬는데 정말 이 아이가 엄청나게 성공했지 뭐니? 매스컴을 달 정도로 말이다. 그걸로 그는 아버지에게 복수한 거란다.

누군가에게 원수 갚는다고 이빨 갈지 마라. 그 시간에 노력하여 성공하면 그가 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야.

朋友

심장이 시키는 대로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할 줄 아는 영어라곤 “How much is it?”(이거 얼마예요)와 “Discount, please-”(값아주세요) 정도 밖에 없었던 스물세 살 겨울, 생애 첫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인도. 누구와 같이 갔느냐? 아니요, 혼자 갔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최소한의 돈과 몇 벌 옷, 자외선크림만 달랑 들고 말이지요. 체류기간은 한 달, 수도인 델리를 시작으로 사막의 도시 자이살메르, 호수의 일몰이 일품인 푸쉬카르 타지마할로, 유명한 아그라 캔지스 강이 흐르는 바라나시 등, 인도 중부지역을 돌고 돌아 생각되었습니다. 그때 인도에 간다고 했을 때 열이면 열 다 말렸지요. 인도가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 줄 아느냐, 혼자 그것도 여자 혼자서는 더욱 더 위험하다고요. 남의 말 잘 안 듣는 성격인데도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니 막연한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급기야 여행 가기 몇 주 전부터 하루걸러 한 번씩 악몽과 신경성위염에 시달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청춘, 그것은 청개구리 지요. 하지마라, 하지마라 할수록 포기보다는 오기가, 생기는 두려움이 커질수록 기대감도 커지더라고요. 한국이든 인도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심을 늘 입으로 불렀던 찬양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를 이제에는 온 몸으로 느끼고 경험할 때가 온 거지요. 혼자여도 혼자가 아닌 걸 나 자신에게도, 남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2006년 11월 29일, 심장이 시키는 대로 배낭 하나 메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뒤돌아 생각해보면 참 무식했고 그래서 참 용감했던 여행이었지요. 숙소는 어디에서 묵을 건지, 도시는 어떻게 이동할 건지, 기차표는 어떻게 예약하는 건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한 달 동안 무사했느냐고요? 과장 하나도 안보태고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린아이의 시간처럼 하루하루가 느리게 흘러가는 나라, 경쟁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써버리는 우리와 달리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사람을 보는데 시간을 쓰는 나라, 못살아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나라, 이래도 저래도 그냥 웃어버리는 나라, 그곳에서 잊고 있었던 여유를 만났습니다. 인도에 도착한 순간부터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직전까지 좋은 동행자와 착한 인도인을 만나 속속하며 버스며 기차표 예약이며 먹거리며 볼거리며 모든 것을 다 쉽고 편하게 누리다왔지요. 매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안느꼈을까요? 안느꼈을 겁니다. 인도를 갔다 온 후, 혼자서 무얼 하든지 별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좀 더 대답해지고 배포가 생겼을까요? 생각 많은 것 같습니다. 조심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심장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 보세요. 무식하게요.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를 그때 만나게 될 겁니다.

신은혜

dopal0203@naver.com

Good News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큰 용기를 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었던 헬렌 켈러는 삼중고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레드클리프 대학교를 졸업한 후 많은 집필 활동을 하였으며, 사회복지 운동가로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이 영원한 고통이 아님을 알았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었기에 영원한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 다. “나는 영원한 세상을 믿고 있기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감각들을 오는 세상에서는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곳에는 나의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 곳에는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예쁜 꽃들이 피어있고, 수정 같은 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을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며 죽은 뒤의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인생)의 년 수가 칠십이요 강건하

면 팔십이라도 그 년 수의 자량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시90:10). 인생의 유한함과 세월의 빠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 중요하지 내일이 무슨 소용이냐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 다. 그러나 육체의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며, 그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세상의 향방이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썩어 없어질 육체를 위하여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악보를 내려놓은 성가대처럼

::Healing in Music::

지난주 서울 4부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위성으로 전해지는 찬양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지, 이제 우리 교회 성가대가 명실상부 세계 최고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가대의 찬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악보를 보지 않고 찬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악보를 보지 않으면 수십 명의 대원들이 지휘자에게 완전히 집중하여 찬양을 하게 됩니다. 악보가 있을 때는 악보와 지휘자 양쪽에 시선이 분산되는 반면, 손에 든 것이 없으면 집중할 곳은 오직 지휘자 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모든 대원들이 지휘자를 주목하여 찬양하게 되고, 그 결과 여러 소리의 조화가 하나가 되어 아름답게 울리게 됩니다.

이처럼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매주 악보를 내려놓고 찬양하기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심하고 한 주, 두 주 악보를 내려놓고

찬양함을 통해 느껴지는 색다른 맛이 있을 것입니다. 혹 가사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지휘자의 입을 바라보면 해결이 됩니다. 지휘자는 앞에서 열심히 입을 크게 벌려 찬양을 불러주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기에 대원들이 매주 기쁜 마음으로 악보를 내려놓고 찬양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신앙생활에 적용되는 교훈을 깨닫고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을 악보 없이 부르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합창곡을 악보 없이 어떻게 매주 부르며 거부감이 들 수도, 더러는 떨려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여 악보를 내려놓게 되면, 지휘자를 바라보며 찬양을 하게 되고, 악보 없이 부르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휘자가 이끄는 대로 100%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찬양의 질은 오히려 높아지게 되죠. 더 이상

악보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며 지휘자에 집중하는 것으로 찬양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대원의 손에 들린 악보에 ‘우리의 생각’을, 합창을 이끄는 지휘자에 ‘예수님’을 대입하여 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결코 쉽게 되진 않을 것입니다. 내 뜻을 따라 사는 방식이 익숙할 테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었기에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본다면, 앞에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실하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이끄심을 의지하여 믿음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김슬아

gratiaseul@gmail.com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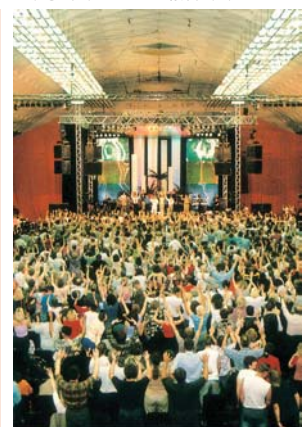
Q: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예배시간에 ‘성서낭독’이라고 해서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을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왜 그 순서가 생략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교독문은 유대 회당의 ‘쉐마낭독’을 따라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하여 모임 때마다 신명기 6장 4-9절을 함께 교독하였습니다. 가끔 민수가 15장 37-41절을 교독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 때에는 없었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골라내어 낭독하는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좀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성가대원들이 따로 있어 성가를 부르는 것처럼, 시편을 낭독하는 사람들이 따로 구별되어 있어서 이들이 교독을 하였습니다.

기독교는 유대의 ‘쉐마낭독’과 가톨릭의 ‘시편낭독’을 따라 ‘교독문낭독’을 만들게 되었는데, 초창기 기록을 보면 기독교의 교독문 내용이 인도자가 묻고 회중이 답하는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찬송가 뒤에 교독문을 붙인 뒤로는 형식적으로 교독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독문은 성경을 똑 똑 잘라서 대충 맞춘 것이라 함께 합창하기에는 운율도 안 맞고 호흡의 간격도 맞지 않아 교독문 시간은 마치 불협화음을 내는 시간처럼 되었습니다.

예배의 구성과 순서는 교단과 교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교회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찬송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 반면 형식적인 교독문 낭독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초석 목사
체코 & 슬로바키아 집회

2013. 5. 13(월)~23(목)
브르노(Brno) &
브라티슬라바(Bratislava)